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옛 언약의 마지막 말씀 II

(말라기 3:13 - 4:6)

옛 언약, 곧 구약의 마지막 말씀의 교훈을 다섯 가지로 받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 본 강에서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1.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 하신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4:1).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될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3:2)이나 ‘용광로 불’은 똑같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나 심판의 정도가 틀린 것을 말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은 자기 백성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더러운 것, 악한 것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 납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요 15:2).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들며 열매 없는 가지는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 잘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가지를 치는 아픔이 있었지만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은 악한 자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3장의 심판은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하여 열매 없는 가지를 자른 정도이지만 여기서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용광로 불에 넣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3:16).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곧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모두가 불에 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4:2).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는 광선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남은 자들은 그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공의로운 해는 어둠에 상처 받은 인생들을 치료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며 “우리 인생들은 율법 아래서는 약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는 강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 완전한 삶의 기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중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4:4).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복음은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빨리 받아 들이므로 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살리시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악인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이치는 영원불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도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과 생각을 앞서가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라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하다, 진실’이라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참진리를 말할 때 ‘아멘’이라는 응답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신명기 27:15 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느헤미야 8:6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4:6).

말라기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와서’란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곧 새 언약이 생긴다는 사실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빨리 받아들이므로 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살리시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악인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고 구원만 있을 터이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 예배

부활절 새벽예배 3월27일 새벽5시 · 주일예배시 성찬식

우리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가셨던 여인들처럼 3월27일 새벽5시에 본당에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며 이 날에는 그동안 안식년을 가졌던 김영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또한 주일 예배는 모든 부서가 본당에서 함께 드리며 감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어예배부와 예배다부 그리고 사랑부는 해당 시간에 본당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1일(월)~26일(토) 새벽5시30분 · 금요일: 해있는 동안 금식선포

우리교회는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이 되는 1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기로 하고 이종윤 목사의 인도 아래 새벽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시간은 현재 새벽기도시간인 5시 30분으로 변동이 없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

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목상한다. 아울러 25일 금요일 하루는 해있는 동안 '특별금식일'로 정해 금식을 하며 부활 주일에는 금식을 하며 준비한 금식헌금과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린다.

제21회 군중목사 후보생 수련회

3월22일(화) 11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군중목사로 임관할 후보생들의 입대 전 예비소집 교육인 제21회 군중목사 후보생 수련회를 우리교회의 후원으로 22일(화)부터 갖는다.

첫날인 22일(화)은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11

시 개최예배 후 특강이 있고 23일부터는 여전도회관에서 진행된다. 비전2020 운동의 선봉이 될 군목들에게 군목사역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수련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기도 지원 바란다.

3월 성경통독 시상

3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3월 성경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5독>: 김경래 성도(13교구)
- <3독>: 김현주 권사(7교구)
- <2독>: 김해연 집사(5교구) 서영애 권사(5교구) 김계순 권사(6교구)
- <1독>: 이영숙 집사(1교구) 박정수 집사(6교구) 황선희 권사(5교구) 김대호 장로(8교구) 오유진 학생(11교구) 김용호 집사(12교구) 송성식 집사(12교구) 곽미숙 집사(13교구) 김미경 성도(13교구)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

일본 시마네 현의 독도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전국 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교회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며 전교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벽면에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라 쓰인 플래카드를 부착하였다.

성도된 우리가 조국을 위해 책임있게 기도할 때이다.

고난주간 · 부활절 행사계획

날짜	행사
21(월)~26(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 5시 30분
25(일)	해있는 동안 금식 전교인 연합다락방 : 웨스트민스터홀 저녁 8시
27(일)	부활절 새벽예배 : 5시 주일 1~3부 예배 : 성찬식 부활절 감사헌금 금식헌금 부활절 찬양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편지 왔어요

중국 전도의 길이 열리길...

존경하는 이 박사님
주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장신대 신대원 시절, 박사님께 강의의 영광을 받은 선 진흥입니다.

지금은 나이지리아에서 중국계 실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최근 야후 웹사이트를 통해 박사님의 설교를 중국어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보라는 것으로 제 전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중략>

박사님의 책들이 중국어로 번역될 수 있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박사님과 서울교회 위에 계속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제자 Sun Xinhong

금요일기도회의 부흥을 위하여...

더욱 높이 날기 위해



서울교회 금요일 기도회가 밤하늘의 비상을 앞두고 힘껏 울크리고 있다.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작되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은 원근각처에서 모여드는 발걸음들로 겨울 동안 침체되었던 영적 날개를 펴는 부산한 움직임인 것 같다.

2005년 현당의 해를 맞아 전 성도가 기도하던 중 스데반 회원들이 금요일 새벽의 불을 당겼다. 자체적으로 조를 짜매주 금요일 밤이면 가족들과 함께 나와 현당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스데반 회원들의 교회사랑은 다분히 전투적이며 앞장서는 충성심들이 남다른 것 같아 절로 힘이 생긴다.

모 집사님은 현당할 때까지라도 매주 나올 것을 다짐하며 철야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철야가 살면 우리도 산다고 옛 신앙 선배들의 철야기도가 우리의 민족을 구해내었노라고 철야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 우리들도 어려웠던 I.M.F. 시절 전 성도들의 기도로 기념비적인 교회당을 세워 기적의 현장을 몸소 체험한 기도의 산 증인들이 아닌가?

추운 겨울 야간 경비를 서며 장작불에 발을 녹이며 군고구마 구워먹던 그 시절이야기가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시절엔 우리 기도의 숨결이 담겨있어 돌아볼수록 소중하지만 한 우리들의 신앙 여정의 잊지 못할 한 페이지다.

그때를 기억하며 또 현당의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의 향기를 밤하늘에 마음껏 날려 보내자. 과부가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귀가 따갑다고 하실 때까지 말이다.

우리 모두 교회 현당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영적 부흥의 단계까지 이르러 현당을 위해 기도했더니 나의 다른 기도 제목까지 응답되었다고 간증할 날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는다.

기도의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식욕이 왕성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현당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서울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홍성주 장로(제5기 단기선교팀 단장)

교회의 최대의 과제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지난 2천년 동안 세계교회가 추구해 온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서울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 민족의 75%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비전2020운동과 2010년까지 해외선교사 100명을 파송하는 선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학부도 이에 발맞추어 '대학부 절반은 단기선교로, 절반은 농촌전도로'라는 구호 아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한반도를 넘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까지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금년에는 대학부가 주관하고, 청년부와 장년부가 협력하여 제5기 동아시아 단기선교를 떠나고자

합니다. 단기선교의 목적은 이미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장기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2차, 3차에 걸쳐서 장기선교사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5기 동아시아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와 후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순절의 묵상

이 한마디 때문에

이영철 집사(11교구)



시순절인 이즈음 저는 "사람아 내게 죽기까지 충성하여라"는 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격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순교자와 현대의 순교자들의 사이에는 많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믿겠노라"고 고백하며 기쁜 얼굴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생생히 나와 있어서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앞서 간 성도들이 배가 꺾이고 사자들의 이빨에 갈갈이 찢기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구하고 있을 때 나의 육신은 안일함과 형통만을 구하였습니다.

1950년 10월에 정읍시 소성면 애탕리의 두암마을에서 벌어진 순교 사건은 숨이 턱칠질만큼 잔인한 장면입니다. 20 여명의 순교자 중 5명만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한사람씩 차례로 죽이면서 "당신배들 말대로 하겠습니까."라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며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기에 나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순절 절기에 특별한 은총으로 다가오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



교육자 집사(사랑부 교사, 1교구)

1983년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결혼한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은 첫 아들 주형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자라던 주형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 주형이가 발달 장애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물한 살 성인이 되어 교회 사랑부에서 잘 적응하고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들 주형이의 지난 날을 새롭게 기억하며 글을 쓰려니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한편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부부의 신혼 생활은 참으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형이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주형이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형이를 손에서 잠시도 놓지 못하며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주형이를 내 힘과 의지에 입각하여 치료와 교육에 전념했던 지난날들이 신앙을 가진 지금 참으로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비교적 큰 시행착오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세상 지식과 내 생각만을 앞세웠던 것을 생각하면 나의 믿음 없음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던 내게 비로소 평안이 깃든 것은 주형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이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미지근하기만 했던 나는 숨이 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면서부터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나날이 깨달으며 나는 주형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가진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부는 보물과도 같은 주형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형이로 겪은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있어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었고 주형이를 더욱 풍성함과 너그움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가정과 같은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그의 거룩하심과 치유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나와 내 자녀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형이가 속해 있는 사랑부의 교사로 봉사하는 저는 주일 아침에 주형이와 나란히 교회에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사는 주형이를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서탐방 - 유년부 찬양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교회학교 집회를 마친 유년부 찬양대는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 앵두 같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에 여념이 없다.

다른 친구들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지만 찬양대 친구들은 남아서 한 시간 남짓 찬양을 연습하며 또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 50명으로 구성된 유년부 찬양대(지휘:김지현 선생, 반주:박재원 선생)는 매월 첫 주 1부 가족 예배에서 헌금송을 담당하며 매주 유년부 집회에서, 그리고 맥주감사절에 전교인 앞에서 찬양 발표를 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의 교회학교인 유년부(지도:이대훈 목사, 부장:오광환 집사)는 1부 가족 예배 후 701호에서 교회학교 집회를 가지는데 이때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드린 후 각반으로 흩어져 성경공부를 한다.

찬양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보다 40분 일찍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침도 못 먹고 오기 일쑤지만 모



두들 찬양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점심 시간이 넘도록 연습하며 어려서부터 주님께 헌신하는 아이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간식이며 찬양대 가운을 챙기며 유년부 찬양대를 뒷바라지 하는 백혜숙 집사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바란다며 많은 초등학교생들이 일부러 노래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는데 유년부에 오면 성악을 전공한 지

휘자로부터 훌륭한 지도를 받으며 은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힘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백 집사는 아이들은 찬양대를 통해서 인내력을 배우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갖게 될 것이라고 더 많은 친구들이 찬양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찬양대원 친구들은 특히 전도를 잘한다고 한다.

아마도 친구들에게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는 모양이어서 친구들을 곧잘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때로는 안 믿던 부모들도 아이들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 이즈음 어려서부터 참신이시며 참인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란 아이들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 분명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허숙(편집부)

여전도회 대청소 현장을 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말지 마세요! 아직도 더 올라 가야 되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 건축 현장 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야?여기가 본당이구나! 여기에서 예배드릴까, 아니 저기에서 예배드릴까, 예배드리는 광경과 완성된 예배당을 그리며 꿈꾸며 부푼 감격에 빠져 창립 날을 애대게 기다리며 흥분해 있던 적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나 지난 수요일을 봄맞이 대청소 날로 정하여 수요일 1부 예배 후 여전도회 주제로 청소가 시작되었다.

오래된 세월도 아니련만 이곳저곳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들은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듯 교회당을 사랑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다. 이 목사님께서서는 벽에 자국이 난다고 아직도 못하나 박지 않으시며 애지중지하는데 우리들의 교회 사랑은 어떠한가. 아직 현당도 하지 않은 예배당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아껴야 오고 오는 후손들에

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울교회 전통을 물려줄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서는 겨우내 봄을 준비하시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물을 올려 파릇파릇 봄을 트이게 하시며 봄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이 시간도 바람을 보내시며 계절을 가꾸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터이다.

우리들도 내가 우리 집 꾸미듯 거실의 손님을 맞을 때, 좀 더 예쁘고 더 격조 높게 단장하는 심정으로, 교회당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면 기뻐하실 것 같다.

청소를 끝내고 8층 만나 홀의 탁 트인 전경을 내려다보니 구룡산 너머 봄이 오는 소리가 한 걸음 한걸음 살포시 들리는 듯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신동기(편집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2일 (화) 군중목사 후보생 수련회 개회예배 설교와 영성 훈련 특강을 한다.
- 이전 개업: 13교구 김한성 집사 '김한성 성령회파' 압구정동 T. 3442-2302
- 승진: 14교구 한광마 집사 하이닉스 상무부 김광룡 집사: 장학관
- 이사: 안홍희집사 전화집사(11-10다락방) 송과구 문정동 문정래미안 102/601호 전화:6429-3500 임충식 집사 신선주 집사(3교구) 역삼1동 금호어울림@102-904 T.563-7958
- 득녀: 최정필 성도 홍지민 성도 가정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이영조 집사 네덜란드 '국제현대음악제 한국 음악의 밤' 주제 작곡 16곡 발표차 출국(3월14일-22일)
- 주간 식당 봉사: 안드레남선교회(3월20일) 베드로남선교회(3월27일)
- 금주의 식사: 최창화 성도·오영숙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4.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니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